



광주·전남 기술창업 코로나 이전 회복 못해

중기부 지난해 1~11월 '창업기업동향'

지난해 광주·전남 기술기반 창업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전남 기술창업 비중은 강원·전북과 함께 전국 하위 수준을 전전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광주 5037개·전남 4519개 등 9556개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0.2%(18개) 증가했다.

기술기반 창업은 기술기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창업을 말한다.

국제경제협력기구(OECD)와 유럽연합 기준 기술기반 업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해당한다.

광주 기술창업 수는 전년보다 3.4%(116개) 증

광주 5037곳 전년비 116곳 늘어...도·소매업 비중 29.2% '최대'
전남 4519개로 148개 줄며 2년째 내리막 '전국 하위 수준' 전전

가했고, 전남은 3.2%(-148개) 감소했다.

전남 기술기반 창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1~11월 기준 전남 전체 창업기업은 2019년 3만 9077개에서 2020년 4만 2741개로 증가했지만 2021년 3만 8050개로 다시 감소했다.

기술창업은 4840개(2019년)→4667개(2020년)→4519개(2021년) 등으로 2년째 감소 추세다.

창업 열풍을 타고 광주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3만 2586개로,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전인 2019년 3만 1797개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기술기반 창업 비중은 15.6%(2019년)→13.5%(2020년)→15.5%

(2021년) 등으로 큰 성장세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기술기반 창업 비중은 12.4%→10.9%→11.9% 등을 나타내며 코로나19 창궐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두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 비중은 전국 평균(16.8%)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에서는 129만 7885개의 창업기업이 탄생한 가운데 기술기반 창업은 16.8%에 달하는 21만 8327개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기술기반 창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20.3%(25만 5068개 중 5만 1823개)였다.

경기가 19.1%로 뒤를 이었고, 세종(17.9%), 경남(16.8%), 울산(15.7%), 광주(15.5%), 대전

(15.2%), 대구(15%), 충남(14.9%), 충북(14.5%), 경북(14.4%), 부산(13.6%), 제주(13.3%), 인천(1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전북(각 11.9%)과 강원(11%)은 하위권에 들었다.

지난해 1~11월 기준 광주에서 창업한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창업기업 중 29.2% 비율에 달하는 도·소매업종 9513개 기업이 광주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부동산업이 19.6%(6401개)로 뒤를 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13.2%(4314개), 건설업 7%(2267개) 등 순이었다.

전남에서도 도·소매업 비중이 26.7%(1만 146개)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 16.1%(6111개), 부동산업 13.8%(5247개), 건설업 7.3%(2769개) 등으로 광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침실에 봄을 들이세요 1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8층 '알레르망' 매장에서 봄철 이불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이날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4주년 할인전-시은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쇼핑 제공>

“해상풍력 발전·수산물 추가 수입 반대” 전국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오늘 목포서

전국 9개도(道) 어업인들이 16일 오전 해상풍력 발전과 수산물 추가 수입에 반대하는 '어업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곳곳에서 연다.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목포 북항을 포함한 전국 권역별 주요 항포구 9곳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과 포괄

적·점진적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막고자 마련했다.

이날 목포 북항 내 서남권수산물종합지원단지 인근에서는 어선 해상 시위를 열고 '어업인 성명서'를 낭독한다.

어업인들은 황금어장을 빼앗는 민간 주도 해상풍력개발방식 폐지를 주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수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여수 어업인들은 총궐기대회를 열고 어선 600여 척을 동원한 해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에 쓰나미처럼 밀려와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중대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일언반구 없이 밀실에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수산업에 끼칠 영향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크라이나 악재’ 코스닥, 15개월 전 수준 후퇴

코스피 2600대로 하락

원·달러 환율 1200원 근접

금값 2020년 9월 이후 최고치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15일 주식 등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이날 코스피는 9거래일만에 다시 2600대로 내려앉았다. 코스닥지수는 나흘째 하락하며 15개월 만

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8원 이상 올라 1200원에 근접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값이 2020년 9월 이후 최고치로 뛰었다. 국내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러시아군이 이동 중인 모습이 포착되고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94포인트(1.03%) 내린 2676.54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난 11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달 28일(2663.34) 이후 9거래일 만에 2600대로 내려앉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인 2661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도 400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반면 개인은 1842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물을 받아냈다. 기관도 장 막판 매수 우위로 전환하며 664

억원을 순매수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 오는 16일(현지시간)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돼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87포인트(1.51%) 내린 839.92에 장을 마치고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는 증가 기준으로 2020년 11월 17일(839.47) 이후 최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13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도 161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255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9조 2255억원,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6조 8054억원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달러당 8.7원 오른 1199.8원에 거래를 마쳤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협에 안전자산인 달러는 원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76.54 (-27.94)
↓ 코스닥	839.92 (-12.87)
↓ 금리(국고채 3년)	2.345 (-0.002)
↑ 환율(USD)	1199.80 (+8.70)

광주·전남 수출 호조세 지속

1월 49억9800만달러로 전년비 21.6% ↑...7억6800만달러 흑자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올 연초에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1.6% 증가한 49억9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41.6% 늘어난 42억3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7억6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한 14억400만 달러, 수입은 14.3% 늘어난 6억4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6400만 달러 흑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품목별로 수송 장비(3.3%), 반도체(35.2%), 가전제품(20.4%), 기계류(14.9%)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전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5.7% 증가한 35억9400만 달러, 수입은 47.9% 급증한 35억9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00만 달러 흑자였다.

품목별로 화공품(48.9%), 석유제품(46.0%), 철강 제품(29.0%)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중욱(오른쪽 두 번째) 은행장과 김영록(오른쪽 세 번째) 지사가 지난 14일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전남도 “청년 교통·문화비카드 신청하세요”

21~28세 연간 20만원...광주은행과 업무 협약

전남지역 21~28세 청년 12만명이 연간 20만원의 교통·문화비를 지원받는다.

전남도와 광주은행은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송중욱 은행장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협약에 따라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전 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 발급·관리 업무를 맡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 카드 신청대상은 전남에 2년 이상 계속 거주(2020년 1월 1일부터)하고 있는 21~28세이다.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공연관람·학원수강·도서 구입·교통비 등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계발을 위해 쓰인다. 카드는 전남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4월 중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700만원 상당 경품 행사를 벌이며 문화복지카드 사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고객정책자문단 100명 모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오는 20일까지 '제 5기 고객정책자문단' 1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사학연금 가입자(재직자 및 연금수급자)이다.

이들은 네이버 밴드 앱을 통해 연금제도 운영과 정책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앞으로 오는 12월까지 11개월 동안 활동하며 정책제안, 지역별 소모임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활동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공모전과 소모임에서 우수 사례에 뽑히면 상이 주어진다.

고객정책자문단은 지난 2017년 출범한 이후 고객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활동이 종료된 '4기 고객정책자문단'은 공단 주요사업과 서비스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학연금은 부서별 과제로 연계해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개편 디자인 채택, 조회·신청 등 연금정보서비스 및 모바일 앱 기능 강화, 제휴업체 선정기준 개선 및 고객 수요 기반 제휴업체 확대 등 제휴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고객 친화적 문제 사용 등 고객맞춤형 알림서비스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tp.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